

이재명,尹정부 겨냥“대한민국 주권 제대로 행사하고 있나”

“억울한 피해자들 처참히 모욕하는게 현 정부”
“다케시마의 날 한미일훈련, 자주독립국 맞나”
“원전오염수 방출에 섬나라도 항의...정부 뭐하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절 104주년인 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우리나라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나, 자주 독립국임을 제대로 선포하고 실행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1혁명 정신은 4·19혁명으로, 5·18민주화운동으로 그리고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촛불혁명을 이어 앞으로 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많은 선조들이 피흘려 만들고자 했

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모든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손잡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아니었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있고 있는 게 있다. 무려 36년 간 이 한반도를 무력으로 강점했던 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사실”이라며 “그 36년의 세월동안 우리 한반도 국민들이 희생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 한반도에서 엄청난 수탈과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남겼다.

이 대표는 “피해자가 억울해서 가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라, 배상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정부가 나서서 ‘돈 필요해? 알마면 돼? 대신 줄게’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지금도 일본의 야만적 침략행위로 희생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도 와 있다.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싸우고 계신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억울해서, 있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서 수십년 인생을 바쳐 싸우고 있는데 마치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것처럼 사람을 처참히 모욕하는 게 이 정부다. 옳은 태도인가, 있을 수 없는 일”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이 지정한 다케시마의 날에 대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될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일마 전 일본이 독도를 일본땅이라 우기면서 독도에 붙인 이름 다케시마, 그 다케시마를 기념한다는 날에 한미일 연합훈련이 동해상에서 진행됐다. 왜 하필 다케시마의 날에 훈련인가”라며 “훈련 끝나고 미국과 일본이 공동 발표한 보도자료엔 이렇게 써져있다. ‘일본해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



시했다’라고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라고 표시했다. 이게 자주 독립국 대한민국의 정부 태도가 맞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해서 태평양의 조그만 섬나라들도 치열하게 항의하고 싸우는데 바로 인접한 대한민국 정

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 선대들이 목숨과 피를 바쳐 만들고자 했던 나라, 자유롭고 평등하고 진정으로 독립된 나라, 내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덧붙였다.

최이슬기자

서동욱 의장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로 지역 발전 새 동력 창출하길”

2월 27일,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응원대회 참석



서동욱 전남도지사는 최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응원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100명 명 유성을 위한 응원대회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농업인학습단체가 함께한

가운데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설명에 이어 서포터즈 지원 MOU 체결, 응원 퍼포먼스 등 행사가 진행됐다.

서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국제농업박람회,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등과 함께 전남 관광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 지방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도내 생산품 판매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농업인 여러분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주시길 바라며 더불어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전남도의회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고향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친명 vs 비명’, 내달 원내대표 선거서 붙는다

당초 5월 둘째 주에서 일정 당겨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 계파 갈등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분간 친이재명(친명)계, 비이재명(비명)계 간 내용은 불가피하며, 다음달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 구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이른 오는 4월 중순경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매년 5월 둘째 주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거에 맞춰 이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추세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오는 8일 예정되었으며, 현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는 4월 7일까지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 만큼 민주당도 빠르게 지도부를 정비해두자는 것이다.

나아가 당 지도부가 이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 만큼 ‘조기 경선’을 원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수 있다.

한 재선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부결 표가 예상보다 적었던 만큼 원내대표 선거를 앞당기자는 의견이 나올 수는 있다”며 “다만 이는 원내대표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현재 거론되는 원내대표 후보군은 안규백 의원(4선)과 박광온·윤관석·이원욱·전해철·홍익표 의원(3선), 김두관 의원(재선) 등이다. 여기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이원욱 의원이며, 친문재인(친문)계인 박광온·전해철 의원도 비명명계에 속한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비명계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앞서 가결에 힘을 실은 ‘이탈표’를 현 체제에 불만을 가진 세력으로 본다면 약 30~40명 정도인데, 선거가 가까워 간 세력 다름으로 변하게 된다면 결구 수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이에 물밑에서는 비명계 후보 간 단일화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바뀌 말하면 범친명계에서는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구조다.

정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